



〈기념식에서 간호사를 받아든 필자〉

내가 본 看護事業의 어제와 오늘

宋 浩 星

〈대한병원협회장
서울적십자병원장〉

대한간호협회 창립 50주년의 부제

내가 아는 간호사업은 30數年 전 부터이다. 지금에 비해서 무엇이 달랐을까? 내가 근무하던 병원의 간호원은 대다수가 日人이었고 日人이라는식의 간호사업이었다. 지금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낮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 정신면에서는 훌륭했다고 하겠다. (물론 시대의 차이는 제산해야 하겠으나)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간호를 받는 사람도 순진했고 간호하는 사람들도 훌륭했다.

해방후 水道도 전기도 없는 병원이었고 자력없는 인원에 질서없는 배치는 우리가 이미 알고있고 과거에 해오던 정도의 사업도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새로운 간호사업을 한다느니 보다는 어떻게 질서를 잡느냐에 머리를 써야했다. 혼란한 가운데서도 醫界 中 의사 간호원은 다른 분야보다 훌륭했다.

질서는 나시 않았다. 大戰 후 의학이 발달했고 많은것이 달라졌다. 특히 수역, 마취, 태수술, 수술후 간호 또는 공급설계의 변화가 생겼다. 간호의 정신이론과 기술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안다.

간호고등학교가 생겼다. 高女를 졸업한 사람만이 간호학교에 오게 되었다. 무슨 高女까지 나온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는 말도 없지않았으나 새 수준높은 간호원들은 과연 책임감이 강하고 환자다루는 솜씨가 좋다는 것이었다. 일찌기 한국의 간호사업은 수련을 늘일 수 있었다고도 하겠다. 허나 6.25는 또다시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軍醫務를 통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다. 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간호원도 많아졌다.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오늘의 간호사업은 토대를 쌓아온 것이다.

다시 간호학부 간호대학이 생기고 돌아오지않는 외국취업 간호원이 늘어났다. 간호원의 학식이 높을수록 좋다는 이론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고 이 학부졸업생은 아주 훌륭하다는 간호학교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혹시나 간호원 취업기환이 짧아지지나 않는가! 모두 대학졸업생으로 배출 수는 없는 일이고 더우기 간호사업을 너무 편한 방향으로만

이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도 염려된다. 외국가는 간호원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좀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않다. 특히 좋은 간부간호원이 부족하듯 하니 말이다. 요사이 간호사업부문에 나외의 고민이라면 간호원들의 사고의 현대화라고 할까, 개인주의 비주류의 의사나 간호원만이 그대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따지고 수입을 따지고 변안을 너무 추구하교!

아직도 간호사업을 경시하는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의사와 간호원의 대립감은 자라고 있는듯 하다. 의사와 간호원은 한 파트너로서 「다트너 씰」이 필요할 것이다. 10月 유신후 간호원의 활동 또는 봉사된 위는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는듯하다. 보다는 많은 간호사업 이것은 편연보 불만족하나 넓은 활동의 의미하기도 한다. 의사, 간호원은 편협한 지역에서까지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시대의 요소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
아든 필자〉

한국간호협회가 창립된지 50년이 되었으니 1923년에 해당됩니다. 나는 그 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과에 봉직하던 때입니다. 그 시절에 젊은 여성으로 간호원이 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었습니다. 아직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남녀간의 윤리였는데 이런 사회환경에서 남녀환자를 다 간호해야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원 사이에도 극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지내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본 看護事業의 어제와 오늘

이 용 실

〈의학박사〉

이런 환경에서 간호원들이 단체를 조직하였다는 것도 초창기에 활약하였던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일본식 제도하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원의 지위는 의사 밑에서 쓰이는 사환정도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인식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단체행동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원 자신들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선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후 간호교육을 대학으로 승진한 것은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이제 간호사업은 사회가 인정하는 고등교육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까지 널리 한국인 간호원들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 것은 경하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인은 각방면으로 세계무대를 향해 진출합니다. 이 일이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간호협회는 여성단체중 첫째가는 큰 단체입니다. 회원의 수로나 그 활동범위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간호협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떠 직업도 그렇지만 의료사업의 일부분인 간호사업도 직업의식에서 떠나 사회봉사라는 차원이 높은 공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행동할 때 그 개인에게는 보람을 안겨주고 사회에는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업의 표준인물인 나이팅게일의 행적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한국간호원들 중에도 많은 나이팅게일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단체적으로 공헌할 길을 찾아 전국민적 운동인 유신과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特
別
寄
稿

내가 본 看護事業의 어제와 오늘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는 필자〉

저는 19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간호사업은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공은 다분히 간호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간호교육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동안 간호교육은 역력면으로 발전했습니다. 19년 전의 한국 간호학교의 교과 과목은 따로 따로 했으나 차차 여러 과목을 종합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19년 전에는 피부과간호, 안과간호, 이비인후과간호, 정형외과간호, 신경과간호, 외과간호, 내과간호, 전염병간호 등을 다 따로 따로 가르쳤으나 요사이에는 많은 간호학교에서 내·외과 간호학에 이와같은 과목을 다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시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더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9년 전에는 간호원에게 자연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으나 사회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왕 매 련
〈인천간호전문학교교무과장〉

다. 요사이에는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 어떤 간호학교에서는 강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해서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임상실습을 선생이 지도하지 않고 수 간호원이나 병실에서 일하는 선배들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바빠서 학생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수업과 실습이 잘 연관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에는 선생이 임상과목을 가르치고 또 학생이 실습을 할때도 함께 봐주기 때문에 학습과 실습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년 전에는 한국 간호원들이 별로 연구하지 않았으나 요사이에는 많은 간호원들이 연구

하기 때문에 간호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간호원들은 병을 예방하고 건강의 최적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간호원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잘 나타났습니다. 현대 한국 간호원들은 그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더욱 힘써서 좋은 간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와 오늘의 한국간호사업을 비교해보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여러 간호원들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날로 변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N 교재 판매」

현재 본회 설의공보부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습의(R.N. Review course) 자습서 "Saunders-self-Evaluation of Nursing Competence"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280페이지의 4.6매권인 이책은 좌파면로 길의외 선다형해답을 고르는 출제형으로 되어있고 책부말에 정답집이 첨부되어있어 지방에서 RN준비를 하고있는 회원들의 자습서드 권장합니다.

판매가격 : 원당 1,700원(등기우송료 포함)

문의및 판매 : 설의공보부